

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

장유진, 이병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The Impact of Worker's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Yu-Jin Chang, Byung-Hee Lee*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0대 이상의 직장인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의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업가 정신은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특성 중 외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미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역량을 검증하고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So,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74 employees in their 30s or olde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validity. In addition,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relationships with variables, finall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 of moderating social networks in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study found that, firstly, Entrepreneu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xtroversion, achievement desire, self-efficacy, social network,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oversion. Second, The extrovers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chievement desire, self-efficacy,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roversion. Introversion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hievement desire, self-efficacy,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elf-efficac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ship. Third, social networks have been shown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Reflecting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 expect that those preparing for future start-ups will be a meaningful reference to validate their capabilities and start them.

Keywords : Entrepreneurship, Person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Intention, Social Network, Start-Up

*Corresponding Author : Byung-Hee Lee(Hanyang Univ.)

email: blee@hanyang.ac.kr

Received April 17, 2019

Revised May 20,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최근 한국 경제가 어둡고 깊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좀처럼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추세이다. 통계청(2019)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자의 수는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줄었지만 40대 이상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50대 증가폭은 4만8천명, 60세 이상은 13만9천명에 달했다. 한국 경제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50대 수십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40대 이상 직장인들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조기 퇴직 및 노후 불안감이 커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창업이 대두되고 있다. 창업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고 특히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의 건진성에 공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1]. 영국의 런던 경영대학원과 미국의 Kauffman 재단 연구소, Babson College가 중소기업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공동연구한 발표에 의거하여 창업활동과 경제성장 간에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2].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의 부흥을 위해서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3].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가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에 달려있다. 창업은 반드시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창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4-5]. 창업의도에 대한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 과학과 심리학 기반의 접근으로[6] 성공하는 기업가의 인적 특성,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 등을 연구 하는 흐름이 많았지만[7] 창업의도의 사회적 네트워크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단순히 기업가 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돕는 외부 환경적 요소(사회적 네트워크)를 이해하여 행동과학적 연구와 환경차원의 연구가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 정신이 그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상관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두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이들의 창업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의 역할을 규명하고자한다.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 되지 않은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조절효과를 통해 현실적인 창업의도 향상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서 조기 퇴직 등에 대하여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어떠한 요인으로 창업의도를 가지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가 스스로의 역량을 판단하게끔 도와주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가진단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이다[8]. 창업의도는 개인의 창업의사 결정과 행동의 전제조건이라 하였고[9], 또한 개인의 창업에 대한 관심으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심리적 상태이며 창업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뜻한다[10]. 이지우[11]는 국가 혹은 지역 경제는 조직이 자기 쇄신 특성을 갖추고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의 뼈대를 쌓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갖고 있는 예비 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성취의지와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등의 심리 특성요인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업가 정신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기업가 정신이 있다.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무로부터 유의 비전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고[12] 보통 기업가의 자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13].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전략, 가치, 개인특성, 문화, 경력, 구조 등을 들 수 있다[14]. 많은 학자들이 기업가 정신의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15-17].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3가지 구

성요소를 받아들여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2.2.1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 intention)은 위험을 평가절하거나 위험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성향을 뜻한다[18]. 즉, 새롭게 급변하는 환경에 맞서 모험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19]. Stewart와 Roth[20-21]의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가는 관리자보다 위험감수성 성향이 더 큰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창업한다는 것은 비구조적인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위험감수성향이 작은 사람들보다 위험감수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2.2.2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행동방식을 추구하는 개인의 관심과 의지를 의미한다[22]. 혁신은 1934년 슈페터(schumpeter)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물질, 인적 요소와 힘을 새롭게 합치는 것이라 하며 이것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하였다[23]. 이에 혁신성은 곧 기업가 정신의 원형이라 말할 수 있다. 김오순 외2인[24]의 한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업가의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외식업체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혁신성과 진취성은 경영자의 주관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5]. 강재학 외1인[26]의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3 진취성

진취성(proactive personality)은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해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또한 적극적 경쟁의지와 더불어 시장 내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이다[27]. 진취적 성격이 기업가에게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가는 스스로 비전을 가지며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28]. Becherer와 Maurer[29]의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진취적 성향은 기업과 개인의 기업가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사업체를 창업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진취성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관리자 및 상속자보다 진취적 성향이 더 높았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되어 왔는데[30],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조범근[31]의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사이의 정적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유민형[32]의 연구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위험감수성, 혁신성 및 진취성이 청소년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취성과 창업의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진취성이 부(-)의 회귀계수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창업의도에 역효과를 나타내므로 층별(성별/연령)하여 재분석한 결과 39세 남성 이하(청년창업가)에서 진취성이 정(+)의 회귀계수로 매우 유의하고 정도 높은 함수식이 도출되었다[33].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개인적 특성

기업가 정신과 아울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소유주, 경영자 역할이 창업을 결심하는 단계부터 설립하고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4-36]. 개인적 특성의 학계의 공통된 견해는 ‘개인차’와 ‘일관성’이다[37]. 이는 개인적 특성을 정의할 때 개인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적 특성 연구를 통해서만 타인과 구분되는 특정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우성이 더욱 분명해 질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일정한 반응 양식을 보인다[37]. 본 연구에서는 최윤정[37]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의 요소를 외향성, 내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다.

2.3.1 외향성과 내향성

용[38]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이 객관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외향적 태도가 생활의 일정한 패턴을 이루는 것을 외향성(extroversion)이라 하였다. 반대로 내향성(introversion)은 조용하고 신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유형이다. 대학생의 성격 유형 및 직업희망 유형에 따른 창업의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혜선[39]은 외향적인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이 창업에 대한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모험적인 상황에 더 익숙하다는 연구가 있었다[40].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업가 정신의 위험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창업의도가 높다 라는 가설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외향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업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직접 체험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외향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향성 또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적응이 상대적으로 느리나 점차 빠르게 학습이 진행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좀처럼 포기 하지 않으며 규칙의 제시 및 소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41].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의 창의력과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의 창업이라면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3.2 성취욕구

성취욕구(desire for accomplishment)는 장애를 극복하고 높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어려운 과제도 포기하지 않고 숙달하려는 욕구, 타인과 경쟁하고 이기려는 욕구이다[42].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스스로 책임지는 성향이 크고, 도전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세운다. 또한 예측 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며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진다. 창업의도가 높은 사람들인 경우 높은 성취욕구를 갖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6].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취욕구에 초점을 둔 정용희[43]의 연구는 성취욕구가 창업가적 직업을 선택하게끔 만든다 하였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을 밝히고 창업동기와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의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한 윤남수[44]의 연구에서도 창업동기 요인 중 성취욕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수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45].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 수록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창업 또한 기회의 한 부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46], 창업 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47]. 특히 기업가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창업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높은 신념과 강한 자신감으로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세우며 창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지 된다[48]. 유사하게 이지우[11]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기업가는 창업에 필요한 과업을 익히고 숙달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의도의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4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이 존재하는가의 유무를 들 수 있다[49-50]. 창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과관계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기업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연적이다[51]. 사회적 네트워크(social-network)는 통상적으로 '인맥'으로 표현되는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사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결합된 집합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관련 연구 분야에서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52].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련의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53-54].

오경희[5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한 유대가 약한 유대보다 창업의도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56]. 더불어 박옥열[57]은 창업환경요인 중 개인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기업들은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그들이 속하는 네트워크의 종류와 규모를 늘리고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함으

로써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혁신적 지식과 기술을 익혀 기업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하고 성공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가 정신-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관계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효과를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가설1, 기업가 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개인적 특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창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할 것이다.

가설4,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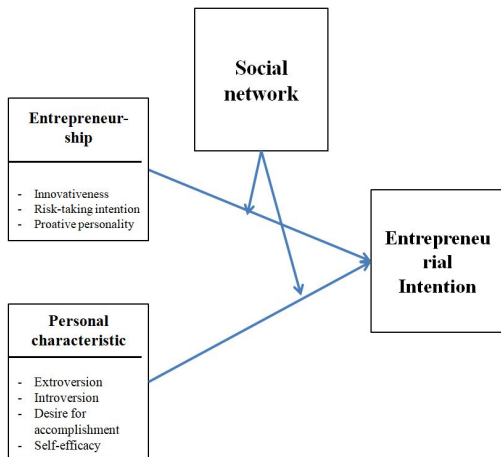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30대 이상의 직장인이며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2019년 2월 25일까지 375부의 설문을 수거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부를 제외한 총 374부의 설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만 30세~만 66세이며 평

균(표준편차) 연령은 만 41.29세(9.3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241명, 여성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19명, 전문대 졸업 33명, 4년제 졸업 232명, 대학원 이상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 59명, IT 33명, 서비스 87명, 유통 45명, 소매 4명, 기타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 미만 23명, 200~300만원 미만 70명, 300~400만원 미만 99명, 400~500만원 미만 59명, 500~600만원 미만 33명, 600만원 이상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74)

division		N	%
sex	male	241	64.4
	female	133	35.6
level of education	below the high school diploma	19	5.1
	a graduate of a college	33	8.8
	a graduate of a university	232	62.0
	beyond graduate school	90	24.1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industry	59	15.8
	IT	33	8.8
	service	87	23.3
	Distribution	45	12.0
	retail	4	1.1
	etc	146	39.0
monthly average salary	less than 2 million won	23	6.1
	2~3 million won	70	18.7
	3~4 million won	99	26.5
	4~5 million won	59	15.8
	5~6 million won	33	8.8
6 million won or more	90	24.1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하위요인이 있는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 척도는 타당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에 의한 요인추출방법과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이상이면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3.1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58], 이춘우 [17], 박상용[59], Dess[60], 강병오 등[61]이 사용한 기업가 정신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은 3문항씩 총 9문항이며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정용[62]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0~.83으로 나타났다. 기업가 정신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 정신 3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854로 최소 기준치인 .6[6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 $X^2=932.05$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혁신성 .71, 위험감수성 .78, 진취성 .69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ntrepreneurship Scale

Factor	Measurement question	Factor load capacity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Risk-taking intention	Entrepreneurship5	.771	1.76	22.01	.78
	Entrepreneurship4	.714			
	Entrepreneurship6	.590			
Proactive personality	Entrepreneurship8	.747	1.44	18.04	.69
	Entrepreneurship7	.622			
	Entrepreneurship9	.451			
Innovativeness	Entrepreneurship1	.958	1.31	16.31	.71
	Entrepreneurship2	.430			
Cumulative variance (%)		56.37			
KMO measure		.825			
Bartlett's sphericity test		$X^2(28)=932.05(.000)$			

3.3.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윤정[37]이 여러 선 행연구를 토대로 제작한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외향성, 내향성,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의 범위는 19~95점이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윤정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cale

Factor	Measurement question	Factor load capacity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Desire for accomplishment	Personal characteristics9	.658	3.14	18.49	.84
	Personal characteristics15	.649			
	Personal characteristics10	.644			
	Personal characteristics12	.641			
	Personal characteristics13	.625			
	Personal characteristics14	.600			
	Personal characteristics11	.578			
Self-efficacy	Personal characteristics19	.697	1.94	11.41	.78
	Personal characteristics18	.683			
	Personal characteristics16	.658			
	Personal characteristics17	.550			
Extroversion	Personal characteristics1	.781	1.83	10.76	.76
	Personal characteristics2	.736			
	Personal characteristics4	.515			
	Personal characteristics3	.482			
Introversion	Personal characteristics8	.724	1.38	8.14	.73
	Personal characteristics7	.711			
Cumulative Variance (%)		48.79			
KMO measure		.854			
Bartlett's Sphericity Test		$X^2(136)=2228.82(.000)$			

[37]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90, 내향성 .84, 성취욕구 .89, 자기효능감 .91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 5번과 6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854로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 $X^2=2228.82$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76, 내향성 .73, 성취욕구 .84, 자기효능감 .78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3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방섭[64]과 민향옥과 김동주[65]의 연구를 토대로 김은경[67]이 제작한 사회적 네트워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단일요인이며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경[66]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4 창업의도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nan과 Chen[67]의 창업의도 설문(Entrepreneurial Intention Questionnaire, 이하 EIQ)을 김지혜[69]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혜[68]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4 최종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문항은 Table 4과 같다.

3.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하위요인이 있는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변인의 왜도 범위는 -.44~.30, 첨도 범위는 -.53~1.33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69].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 정신은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Factor	Subfactor	Question Contents	reference
Entrepreneurship	Risk-taking intention	I enjoy adventures and quaint experiences with risk factors.	[58] [17] [59] [60] [61]
		I make bold decisions at the risk of uncertainty.	
		I want to do my business even if there is a risk.	
	Proactive personality	I always want to do better than others.	
		I really want to solve it, even if it's difficult	
	Innovativeness	I can change anything if I want to.	
I am very creative and creative.			
Personal characteristics	Desire for accomplishment	I am interested in developing a new solution to the problem.	[37]
		I am willing to take charge of the work.	
		I don't give up until work is done.	
		I do my job on my own without a supervisor.	
		I take some risk to improve my performance	
		I try to improve my work performance more than before.	
	Self-efficacy	I try to do my job better than my colleagues.	
		I don't avoid being held responsible for anything other than my present responsibilities.	
		I think I have sufficient qualifications to carry out my current tasks.	
	Extroversion	I can handle all of the tasks given to me by my ability.	
		I feel that my ability and knowledge are equal or superior to my colleagues.	
		I think I have the necessary technical knowledge to handle my new task.	
	Introversion	I am easy to talk to or get acquainted with the first person I see.	
		I tend to act vigorously even when there are a lot of people I do not know.	
		I tend to talk to people around me immediately if there is something sad or joyful.	
Social-network	Social-network	I often hear stories that are active and active.	[64] [65] [66]
		I get shy easily when I go to places where there are many people.	
		I hesitate a lot to adjust to a strange environment.	
		I have people who can get advice or help in connection with start-ups.	
		I have people who can share my concerns about start-ups.	
		I have friends or seniors who can rely on me if something difficult happens in the start-up process.	
Entrepreneurial-Intention	Entrepreneurial-Intention	I am well aware of the successful start-up around.	[67] [68]
		If I start a business, there are people who know enough to be a model among those who know well.	
		One of my close friends is a successful start-up.	
		I'm ready to do anything to be a start-up (or a businessman).	
		My professional goal is to be a start-up (businessperson).	
		I will make every effort and effort to start a business.	
I'm seriously considering starting a business.			
		I have a strong idea to start a business someday.	
		I think that entrepreneurship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Risk-taking intention	Proactive personality	Extroversion	Introversion	Desire for accomplishment	Self-efficacy	Social network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1									
Innovativeness	.77***	1								
Risk-taking intention	.87***	.51***	1							
Proactive personality	.78***	.48***	.47***	1						
Extroversion	.35***	.25***	.28***	.32***	1					
Introversion	-.20***	-.21***	-.17**	-.12*	-.47***	1				
Desire for accomplishment	.64***	.47***	.47***	.63***	.25***	-.19***	1			
Self-efficacy	.46***	.44***	.28***	.45***	.20***	-.15**	.46***	1		
Social network	.49***	.35***	.45***	.36***	.22***	-.20***	.40***	.40***	1	
Entrepreneurial Intention	.62***	.45***	.59***	.45***	.21***	-.12*	.41***	.35***	.55***	1
Average	3.55	3.53	3.04	3.82	3.32	2.69	3.77	3.54	3.37	2.98
Standard Deviation	.57	.76	.87	.62	.70	.83	.53	.62	.84	1.03

(N=374)
p <.05, **p <.01, ***p <.001

4.2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 검증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창업의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창업의도에 따른 기업가 정신,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의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기업가 정신,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내향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difference of each variable according to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able	Group	N	M±SD	t(p)
Entrepreneurship	low	176	2.79±.47	-10.83*** (.000)
	high	198	3.32±.48	
Extroversion	low	176	3.19±.75	-3.51** (.001)
	high	198	3.44±.64	
Introversion	low	176	2.77±.90	1.77 (.080)
	high	198	2.62±.75	
Desire for accomplishment	low	176	3.60±.56	-5.95*** (.000)
	high	198	3.92±.45	
Self-efficacy	low	176	3.40±.61	-4.25*** (.000)
	high	198	3.67±.61	
social network	low	176	2.97±.87	-9.54*** (.000)
	high	198	3.72±.63	

*** p < .01, ** p < .001

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Variable	B	SE	β	VIF	F	R ²
Gender	-.56	.12	-.26***	1.27	13.88***	.159
Age	.02	.01	.14**	1.20		
Education	.01	.07	.01	1.08		
Working Industry	-.02	.03	-.03	1.08	35.14***	.402
Salary	.08	.04	.13*	1.45		
innovativeness(A)	.28	.05	.27***	1.23		
social network(B)	.42	.05	.40***	1.29	30.66***	.402
A	.28	.05	.27***	1.24		
B	.42	.05	.40***	1.29		
A×B	-.00	.04	-.00	1.04	45.78***	.467
risk-taking intention(A)	.43	.05	.41***	1.36		
social network(B)	.34	.05	.33***	1.38		
A	.42	.05	.41***	1.38	40.29***	.469
B	.35	.05	.34***	1.44		
A×B	.05	.04	.05	1.07		
proactive personality(A)	.29	.05	.28***	1.18	35.77***	.406
social network(B)	.40	.05	.39***	1.33		
A	.29	.05	.28***	1.18		
B	.40	.05	.38***	1.33	31.56***	.409
A×B	.05	.04	.05	1.01		

* p < .05, ** p < .01, *** p < .001

4.3 조절효과분석

4.3.1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표준화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인인 혁신성($\beta=.27, p<.001$), 위험감수성($\beta=.41, p<.001$), 진취성($\beta=.28, p<.001$) 모두와 조절변인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가 정신의 하위요인과 사회

4.3.2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업종, 월 평균 급여)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표준화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분석에서는 조절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적용하여 Fig. 2~3에 도식화하였다.

외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외향성($\beta=.12, p<.01$)과 사회적 네트워크($\beta=.44, p<.001$)가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는 외향성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향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내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beta=.47, p<.001$)가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내향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성취욕구·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성취욕구($\beta=.20, p<.001$)와 사회적 네트워크($\beta=.41, p<.001$)가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취욕구가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취욕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 ($\beta=.09, p<.05$)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a)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낮을 때는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미세하게 높아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을 때는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폭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자기효능감 ($\beta=.17, p<.001$)과 사회적 네트워크($\beta=.41, p<.001$)가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취욕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항($\beta=.11, p<.05$)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b)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낮을 때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미세하게 높아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을 때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하는 폭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Variable	B	SE	β	VIF	F	R ²
Gender	-.56	.12	-.26*	1.27	13.88***	.159
Age	.02	.01	.14**	1.20		
Education	.01	.07	.01	1.08		
Working Industry	-.02	.03	-.03	1.08		
Salary	.08	.04	.13*	1.45		
Extroversion(A)	.12	.05	.12**	1.08	28.74***	.355
social network(B)	.46	.05	.44***	1.28		
A	.12	.05	.11*	1.09	25.52***	.359
B	.46	.05	.44***	1.28		
A×B	-.06	.04	-.06	1.03		
Introversion(A)	-.01	.05	-.01	1.07	27.09***	.341
social network(B)	.49	.05	.47***	1.24		
A	-.00	.05	-.00	1.07	23.79***	.343
B	.48	.05	.47***	1.25		
A×B	.04	.04	.04	1.02		
Desire for accomplishment(A)	.21	.05	.20***	1.24	31.21***	.374
social network(B)	.42	.05	.41***	1.34		
A	.22	.05	.21***	1.26	28.10***	.381
B	.42	.05	.40***	1.34		
A×B	.08	.04	.09*	1.03		
Self-efficacy(A)	.17	.05	.17***	1.24	29.87***	.364
social network(B)	.43	.05	.41***	1.37		
A	.18	.05	.17***	1.24	27.29***	.374
B	.44	.05	.42***	1.38		
A×B	.09	.04	.11*	1.0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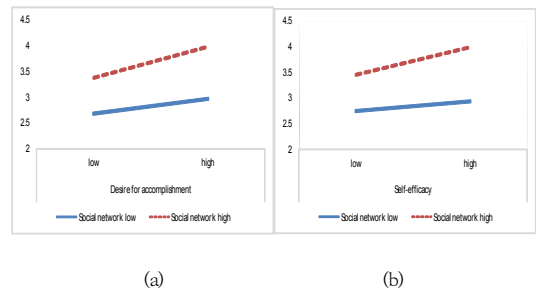


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a) desire for accomplishment
 (b) Self-efficacy

4. 논의

본 연구는 기업의 중간관리자인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 등을 포함한 창업의도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각 구성요소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개인적 특성의 구성요소에 외향성과 내향성을 포함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조절효과 등을 연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창업의도 향상방안을 일깨워주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 창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정신은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31,57]. 이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연히 활용하고 기업가 정신이 높은 직장인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적 특성은 외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 내향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창업의도와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킹이 활발한 사람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58] 스스로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신념과 자신감이 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11]. 개인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환경적 역량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창업의도를 높게 인지하면 자신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외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 외향성, 사회적 네트워크, 창업의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내향성·사회적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활동이 창업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지지되었다[5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창업의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밝혀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에 중요한 변인 관계를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한 관심을 받고있는 창업의도를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잠재적 예비 창업자 육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직장인들의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에 비해 창업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여 적절한 지원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 환경적인 문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미래의 기업가를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와 함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 및 이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이다. 본 연구는 편의를 위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확장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직장인과 비직장인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성적인 조사방법론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심도있는 이해와 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변수, 심리적 변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연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예비 창업가의 창업경험의 유무, 통제력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될 수 있다. 향후 창업의도 연구에서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직장인의 창업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더욱 정밀한 탐색을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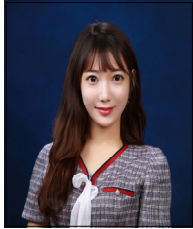
- [1] S. G. Lee, G. H. Lee, "A Study on Relational Benefits of Restaurant Customers", *The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13, No.4, pp.385-402, 2010.
- [2] Y. J. LEE, "Has Entrepreneurial Activities Promoted Growth?: Theory and Evidence from Cross-country Analysis?",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Vol.18, No.2, pp.653-671, 2005.
- [3] K. S. Ha, B. J. Yoon,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8, pp.3406-3414, 2011.
- [4] A. Hyttinen, M. Pajarinen, P. Rouvinen, "Does innovativeness reduce startup survival rat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30, No.5, pp.564-581, 2015. DOI: <https://doi.org/10.1016/j.ibusvent.2014.10.001>
- [5] M. Roach, H. Sauermann, "Founder or joiner? The role of preferences and context in shaping different entrepreneurial interests", *Management Science*, Vol.61, No.9, pp.2160-2184, 2015. DOI: <https://doi.org/10.1287/mnsc.2014.2100>
- [6] D. C.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pp512. Van Nostrand publisher, 1961.
- [7] Y. H. Kim, *Entrepreneurship Research Trends: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paper on entrepreneurship jour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Vol.24, No.4, pp.1-11, 2014.
- [8] S. I. Kang, S. H. Oh, P. S. Yang, "Relationship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and performance: A case of Jeju tourism businesse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22, No.1, pp.487-504, 2007.
- [9] D. W. Naffziger, D. W. Hornsby, D. F. Kuratko,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Vol.18, No.3, pp.29-42, 1994. DOI: <https://doi.org/10.1177/104225879401800303>
- [10] N. F. Krueger, A. L.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5, No.5-6, pp.411-432, 2000. DOI: [https://doi.org/10.1016/S0883-9026\(98\)00033-0](https://doi.org/10.1016/S0883-9026(98)00033-0)
- [11] G. W. Le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Vol.22, No.1, pp.121-146, 2000.
- [12] J. A. Timmons,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McGraw-Hill Publishers, pp.700, 1999.
- [13] C.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 construal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learning orient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start-up management, Seoul, Korea, 2014.
- [14] D. S. Park, E. H. Ku, "An Exploratory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the Growth Intention in Venture Business",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0, No.6, pp.2979-3011, 2007.
- [15] B. R. Barringer,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Achieving a Fit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95.
- [16] J. G. Covin, D. P. Slevin,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1, pp.7-25, 1991. DOI: <https://doi.org/10.1177/104225879101600102>
- [17] C. W. Lee, *A Study on the Rol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Business, 1999.
- [18] D. L. Sexton, N. Bowman,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 No.1, pp.129-140, 1985. DOI: [https://doi.org/10.1016/0883-9026\(85\)90012-6](https://doi.org/10.1016/0883-9026(85)90012-6)
- [19] I. H. Park, D. S. Chang, M. S. Kim, "The Impact of Job Experience Period and Training Attitude of Women Flight Attendants on the Confidence of Service Business Creation",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24, No.3, pp.1775-1795, 2011.
- [20] W. H. Stewart, P. L. Roth, "Risk Propensity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6, No.1, pp.145-153, 2001.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6.1.145>
- [21] W. H. Stewart, P. L. Roth, "A Meta-Analysis of Achievement Motivation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5, No.4, pp.401-421, 2007. DOI: <https://doi.org/10.1111/j.1540-627X.2007.00220.x>
- [22] M. Patchen, *Some Questionnaire Measures of Employee Motivation and Morale, A Report on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USA, pp.15-25, 1965.
- [23] J.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pp25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Press, 1934.
- [24] O. S. Kim, J. R. Yoon, H. C. Kim, "The Effect of Entrepreneurs Innovativeness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Vol.5, No.1, pp.61-91, 2010.
- [25] K. Y. Park,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15, No.1, pp.61-91, 2009.
- [26] J. H. Kang, D. W. Yang,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493-507,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493>
- [27] G. T. Lumpkin,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pp.135-172, 1996.
- [28] A. Rauch, F. Michael,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363-385, 2017.
DOI: <https://doi.org/10.1080/13594320701595438>
- [29] R. C. Becherer, J. G. Maurer, "The Proactive Personality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mong Small Company Presi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7, No.1, pp.28-36, 1999.
- [30] A. Fayolle, F. Liñán, "The future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7, No.5, pp.663-666, 2014.
DOI: <https://doi.org/10.1016/j.ibusres.2013.11.024>
- [31] B. G. Cho,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Department of Startup and Entrepreneurial Business Management, Korea, 2013.
- [32] M. H. Yoo, *Entrepreneurship and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of Department of Startup, Korea, 2014.
- [33] G. Y. Park, H. S. Yang,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9, No.2, pp.97-107, 2014.
- [34] T. M. Begley, D. P. Boyd, "A Comparison of Entrepreneurs and Managers of Small Business Firms.",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1, pp.99-109, 1987.
DOI: <https://doi.org/10.1177/014920638701300108>
- [35] T. M. Box, M. A. White, S. H. Barr, "A contingency model of new manufacturing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2, pp.31-45, 1993.
- [36] W. B. Gartner,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 No.4, pp.696-706, 1985.
DOI: <https://doi.org/10.5465/AMR.1985.4279094>
- [37] Y. J. Choi, *characteristics up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skin care workers*,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of Department of Business, Korea, 2011.
- [38]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pp.640, Princeton University Publishers, 1971.
- [39] H. S. Kim, "The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s will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s MBTI personality type and Job's type",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Vol.5, No.2, pp.89-114, 2010.
- [40] W. D. Hoyer, D. J. MacInnis, *Consumer Behavior 5th edition*, Cengage Learning, pp.493, Publishers, 2010.
- [41] H. J. Chang, E. J. Chang, "The Analysis of Learning Outcomes based on Learners' Personality Types and Interactor Styles in Web-based Small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International*, Vol.24, No.1, pp.137-167, 2008.
DOI: <https://doi.org/10.17232/KSET.24.1.137>
- [42] H. A. Murray, *Explorations in persona*, pp.290-292, Oxford University publisher, 1938.
- [43] Y. H. Jung, *Impa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of Government Officials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of the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Korea, 2013.
- [44] N. S. Yoon,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Korea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Vol.25, No.2, pp.1537-1557, 2012.
- [45] A. Bandura, U. Stanford, "Title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46] J. H. Ya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Vol.9, No.6, pp.65-77, 2014.
- [47] C. K. Lim, H. R.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in Women-Owned Business", *Academy of Paractical Business Administration*, Vo.3, No.1,

- pp.125-142, 2009.
- [48] N. Krueger, D. V. Brazeal,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3, pp.91-104, 1994. DOI: <http://dx.doi.org/10.1177/104225879401800307>
- [49] A. L. Carsrud, C. M. Gaglio, K. W. Olm, N. C. Churchill, "Entrepreneurs-Mentors, Networks, and Successful New Venture Development: An Explo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12, No.2, pp.13-18, 1987.
- [50] D. R. Gnyawali, D. S. Fogel.,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4, pp.43-62, 1994. DOI: <http://dx.doi.org/10.1177/104225879401800403>
- [51] S. Cromie, S. Birley, "Networking by female business owner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7, No.3, pp.237-251, 1992. DOI: [http://dx.doi.org/10.1016/0883-9026\(92\)90029-Q](http://dx.doi.org/10.1016/0883-9026(92)90029-Q)
- [52] J. Y. Park, C. S. Sung,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Vol.11, No.3, pp.87-96, 2016.
- [53] Gulati, Ranjay, Nohria, Nitin, "STRATEGIC NETWORK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1, No.3, pp.203-216, 2000. DOI: [http://dx.doi.org/10.1002/\(SICI\)1097-0266\(200003\)21:3<203::AID-SMJ102>3.0.CO;2-K](http://dx.doi.org/10.1002/(SICI)1097-0266(200003)21:3<203::AID-SMJ102>3.0.CO;2-K)
- [54] R. D. Ireland, M. A. Hitt, Vaidyanath, Deepa, "Alliance Management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28, No.3, pp.413-446, 2002. DOI: <http://dx.doi.org/10.1177/014920630202800308>
- [55] K. H. Oh,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Network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the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of Department of Startup and Entrepreneurial Business Management, daejeon, Korea, 2015.
- [56] D. Y. Jung, K. I. Park,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goal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pp.721-724, 2010.
- [57] U. Y. Park,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students and entrepreneurial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nvironmental intentio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start-up consulting, Seoul, Korea, 2012.
- [58] D. M. Buss, "Selection, Evocation and Mani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3, No.6, pp.1214-1221, 1987.
- [59] S. Y. Park,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EO's Entrepreneurship in Venture Business, the Empowerment on the Memb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of the Department of Venture Technology Management, Korea, 2003.
- [60] G. G. Dess, G. Lumpkin, A. B. Eisner, *Strategic Management: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s*, McGraw-Hill/Irwin publisher, 2007.
- [61] B. O.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Es on business performance : franchise business*,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of start-up consulting, Seoul, Korea, 2011.
- [62] J. Y. Chang, *A Study of Prep-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Franchise Selection Factor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start-up consulting, Seoul, Korea, 2015.
- [63] R. Gorsuch,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Erlbaum Publishers, 1983.
- [64] B. S.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Academic and Industrial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17, No.2, pp.89-110, 2004.
- [65] H. O. Min, D. J. Kim,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Social Status, Networking Environment, and Demographics on Start up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8, No.4, pp.1-17, 2013.
- [66] E. K. Kim, *The Effects of Individual Career Orientation and Preparation of the Old Ag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Network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of the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Korea, 2003.
- [67] F. Liñán, Y. W. Chen,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3, pp.593-617,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540-6520.2009.00318.x>
- [68] J. H. Kim,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of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 Small Business, 2018.
- [69]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445, The Guilford publishers, 2015.

장 유 진(Yu-Jin Chang)

[정회원]



- 2018년 8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국제경영

이 병 희(Byung-Hee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학사)
- 1993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5년 5월 :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국제경영학석사)

- 1995년 9월 ~ 2001년 8월 : 인디애나 대학 (경영학박사)
- 2000년 9월 ~ 2001년 5월 : 인디애나 대학 전임강사
- 2001년 9월 ~ 2005년 2월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부교수
- 2005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국제경영, 국제전략, 전략경영, 정보통신